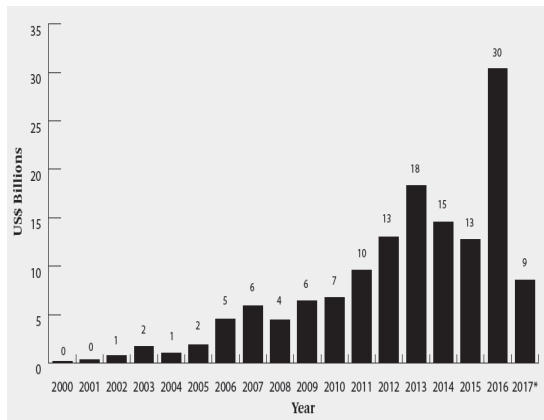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a href="http://www.emerics.org/">http://www.emerics.org/</a> 2018. 10. 25.   아프리카중동	<b>「이슈&amp;트렌드」</b>  <b>시에라리온, 중국차관을 통한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b>  작성   장종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	---

- 시에라리온의 카비네 칼론 항공장관은 최근 BBC 방송(2018.10.11.)과의 인터뷰에서 약 4억 달러의 중국 차관을 통해 수도 프리타운 근처에 건설 예정이었던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고 밝힘.
- 칼론 장관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의 룬기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건설 계획을 대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공식 입장인 동시에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2018년 5월 12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중국의 차관을 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 현지인들에게 개발 혜택이 없고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 시에라리온의 신공항 건설 계획 취소는 단순히 특정국가의 인프라 계획을 넘어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현지의 비판 여론과 이른바 ‘부채-함정외교 (Debt-Trap Diplomacy)’<sup>1)</sup> 논란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에 대한 서방세계의 견제심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올해 9월 3일과 4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정상회의(FOCAC)를 통해 아프리카 53개국 정상급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6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향후에도 중국·아프리카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음.
  - 미국정부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을 ‘부채-함정 외교’의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개도국 투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빌드(BUILD)’<sup>2)</sup> 법안을 상정하고 이달 초(2018.10.3.) 상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 일본정부도 이달 초 (2018.10.6.~2018.10.8.) 아프리카 50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각료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국의 차관 중심의 대 아프리카 외교를 비판하고 2016년에 약속한 일본의 300억 달러 규모의 대 아프리카 투자는 시급한 인프라 정비와 보건 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1)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상화능력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과도한 차관을 제공하고 향후 전략자원 확보나 군사기지 건설 등의 이권을 획득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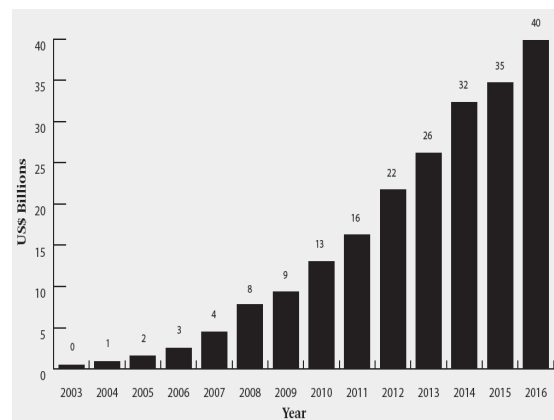
2) ‘개발을 이끄는 더 나은 투자 활용(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법안

그림 1. 중국의 대 아프리카 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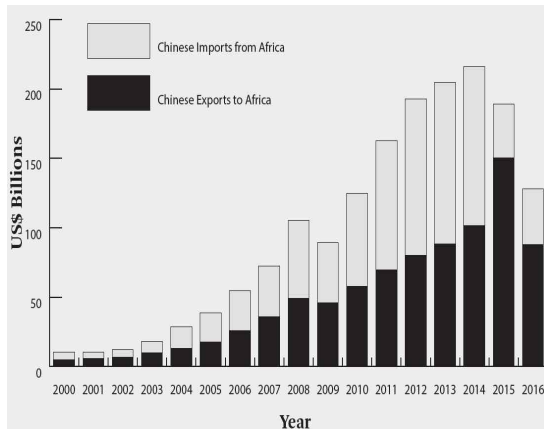
자료: <http://www.sais-cari.org/data-chinese-loans-and-aid-to-africa>

그림 2.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자료: <http://www.sais-cari.org/chinese-investment-in-africa>

그림 3. 중국-아프리카 교역규모



자료: <http://www.sais-cari.org/data-china-africa-trade>

표 1. 중국의 대 아프리카 철도 건설 주요 사례

국가	내용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건설 (진행중)
케냐	나이로바-뭄바사 철도 건설 (2017년 개통)
앙골라, 잠비아, 콩고	3개국 국제철도 건설 (2015년 개통)
나이지리아	아부자-카두나 철도건설 (2016년 개통)

자료: saiscari.org 재구성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미래 시장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경쟁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에 관한 논란은 이러한 경쟁관계 속에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며 중국의 대 아프리카 협력정책이 아프리카 경제에 기여한 측면과 전반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회의 (KOAPEC) 등의 채널과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 등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협력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또한 한국의 경쟁우위를 부각하는 기술 중심, 문화 중심의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